

2023년 12월

경남마을교육공동체

우리들의 행복한 마을이야기

제 32 호

<사진 - 상복초, 나도메이커실의3D펜으로크리스마스 악세사리 만들기>



[발행]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혁신과 마을교육공동체 담당

[편집] 성정은 / 문의 : 055.268.1523

- 1. 행복교육지구 소식 모아모아
- 2. 민·관·학이 함께하는 행복교육지구 성과 나눔 축제
- 3. 지역형마을배움터 - 진주 '들말마을배곳'

TOP NEWS

2023. 김해행복교육지구 다같이 김해 한 바퀴 체험학습 지원



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 안태환)은 10월 4일부터 11월 24일까지 김해역사 교재 『다같이 김해 한 바퀴』를 활용하여 김해 관내 초·중·고교 6개교 542명을 대상으로 마을해설사와 함께하는 지역탐방 체험을 실시하였다.

김해행복교육지구 『다같이 김해 한 바퀴 체험』은 김해 지역을 원도심 1, 원도심2, 장유, 진영1, 진영2, 대동 지역 총 6개의 코스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으며, 각 코스별 역사적인 내용을 설명할 마을해설사와 버스를 지원하였다. 『다같이 김해 한 바퀴 체험』은 코스별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곳을 학생들이 직접 탐방하면서 마을해설사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교재를 활용하여 공부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처음 실시하였는데, 현장의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한림중 교장(김미정)은 “우리 학생들이 거리가 멀어 쉽게 가보지 못한 원도심, 장유 등 김해 안 여러 지역을 직접 탐방하고 마을해설사로부터 지역과 관련된 역사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준 김해교육지원청에 감사한다. 이처럼 삶과 연결된 생생한 경험을 통해 지역의 역사를 공부한 우리 학생들은 성장하여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지역의 역사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줄 수 있는 훌륭한 어른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합천교육지원청, 합천행복교육지구 온데만데 성과공유회 개최



합천교육지원청(교육장 박근생)은 12월 15일(금),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직원 및 마을교사 80여 명을 대상으로 ‘합천행복교육지구 성과공유회 (부제: 너, 나, 우리의 동행同行 이야기)’를 합천호 관광농원에서 진행하였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학교 안팎의 배움을 확장시키는 합천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지역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공연과 함께 △합천행복교육지구 우리 동네 마을배움터 사례 나눔 △마을교사와 함께하는 마을 연계 교육과정 사례 나눔 △학생자치활동, 꿈키움학생동아리 등 학교 지원 공모사업 사례 나눔 △2024년도 합천행복교육지구의 발전 방향 토의·토론 등이 진행되었다. 본 공유회에 참여한 교사 김○○은 “합천행복교육지구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소통하고 참여하면서, 공교육을 혁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뜻깊었다.”는 말을 전했다.

더불어 박근생 교육장은 “동행이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가는 것이다.”며 “우리 학생들이 삶과 지역에 기반한 교육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미래사회를 여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공유하는 장을 더욱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함양 금반초, 행복교육비전 찾아 함께 길을 나서다!



함양 금반초등학교(교장 백종필)가 11월 24일 지역과 학교를 살리는 데 따른 교육비전을 세우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주민자치회, 지역민, 동창회, 교직원 52명이 함께 전남 개음마을학교와 묘량중앙초 등을 방문하며 모두가 같이 배움을 갖는 행복교육탐방을 실시하였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처음 가져보는 탐방의 시간을 통해 폐교의 위기를 맞았던 작은학교가 부활하여 마을공동체의 중심이 되는데 학부모의 기여가 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크게 감동을 받았다. 또한 학교를 살리기 위하여 8년이란 긴 세월동안 직접 돈을 모아 통학차를 운영했다는 대목에서는 모두가 그 열정과 노력에 깊은 탄복까지 하였다. 더구나 학부모가 마을교사가 되어 학교 안으로 들어와 직접 묘량마을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교와 마을이 협력적 지역교육네트워크를 만들뿐 아니라 협력적 마을교육거버넌스를 운영하며 지속가능한 상생을 도모하는 장면에서는 정말 탐방을 오길 잘했다며 우리도 지금의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심감을 보였다.

탐방에 참가한 최형석씨는 “세상은 정말 넓고 대단하신 분 또한 정말 많으시다”며, “우리 학교와 우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함께 모여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고 굳은 의지를 보였다.

의령교육지원청, 의령행복교육지구 하반기 운영위원회 개최



의령교육지원청(교육장 최미숙)은 의령행복교육지구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폭넓은 학생 교육 활동 지원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12월 8일 의령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2023.청미래 의령행복교육지구 하반기 운영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최미숙 교육장, 권원만 운영위원장(경남도의원)을 비롯해 김정수 부위원장(의령 청소년문화의집 관장),

교직원, 지역민,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들이 참석하였다. 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운영위원회는 2023년 의령행복교육지구 운영 성과와 활동을 되돌아보고 2024년 의령미래교육지구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학교, 학생, 학부모의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며 교육공동체의 적극적인 관심 속에서 확산되었다. 인구 소멸 지역에 사는 의령학생들이 폭넓은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의령행복교육지구 사업을 경험한 가례초 교장 이효선 위원은 “의령에 8년간 교직 생활을 하면서 의령의 교육 활동이 변화된 모습을 느꼈다. 학교교사와 마을교사의 협력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활동에 참가하며 공정한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최미숙 교육장은 “내년 의령행복교육지구는 학생 교육 활동 지원 사업에 중점을 두어 전년도 대비 예산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의령의 아이들의 꿈을 키우고 행복한 삶의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을배움터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워크숍 운영



함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승오)은 12월 13일 함안박물관 및 함안일원에서 함안행복교육지구 마을교사 30여명을 대상으로 “지역특색을 살린 마을배움터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워크숍”을 운영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마을교사들이 우리 지역을 알고 지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지자체(함안군청)와 함께 ‘지역특색을 살린 마을배움터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워크숍’주제로 교육 협력 플랫폼 조성 및 2023년 마을배움터 운영에 대한 협의회로 진행되었다.

2023년 마을배움터 운영사례를 함께 공유하고 배움터별 우수사례 및 개선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내년에는 지역의 다양한 교육 자원으로 학생 성장을 지원하여 배움터로 인해 조금이나마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지역의 특색을 살린 배움터 프로그램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에 참여한 마을교사 100은 “지자체와 교육청의 지원으로 2년간 행복교육지구 사업인 마을배움터 운영을 통해 자신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나의 작은 재능이 우리 지역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이 행복했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민·관·학이 함께하는 행복교육지구 성과 나눔 축제 (2)



진주행복교육지구

11월 4일(토) # 진주교육지원청 # 꿈과 끼를 활짝 펼치는 공연과 체험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다양한 활동



사천행복교육지구

11월 11일(토) # 사천청소년수련관 # 전시·체험·보드게임 챌린지
미니드림캐쳐, 드론파일럿, 꽃차만들기 등



거제행복교육지구

11월 4일(토) # 독봉산 월빙공원 # 행복나눔축제 '해피링'
거북선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전시와 공연



고성행복교육지구

11월 22일(수) # 고성종합복지관 # 고성미래교육지구(교육부)
학교와 지역민이 직접 전시 및 발제 통해 성과 공유



함양행복교육지구

11월 11일(토) # 상림공원 연서광장 # 다별골마을배움터, 청소년
나눔마당의 다양한 공연과 체험활동 # 남계서원을 만나다 등 마을배움터 홍보



하동행복교육지구

11월 24일(금) # 하동실내체육관 # 별천지하동&힐링축제
부스체험, K-POP공연, 청소년 토크콘서트 등으로 힐링하는 시간 가져



창원행복교육지구

11월 11일(토) # 창원컨벤션센터 # 체험부스와 공연 등 풍성한 볼거리
천연손난로만들기, 목공동아리의 바스켓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및 전시



산청행복교육지구

11월 29(수)-30일(목) # 산청군문화예술회관 # 천왕봉행복교육지구
오케스트라, 밴드, 탈춤, 난타, 연극 등 다양한 문화예술회관 나눔

지역형 마을배움터 - 진주 '들말마을배곳' 마지막 활동 소개

▶ 들말마을배곳은 우리말 가운데 참우리말인 '토박이말'을 놓듯이 배우는 지역형 마을배움터로 5년째 배움을 이어가고 있다.

<들말마을배곳 온겨울달 겨배움> - 하연주 마을교사 글

- 때세 : 2023년 온겨울달 이틀 옛새 12월 2일(토) 14시~17시
- 곳 : 숲속치즈스쿨
- 함께한 이 : 마을교사 5명, 배움이 34명, 어버이 16명
- 겨배움 : 들말마을배곳 해끝잔치 <치즈, 피자만들고 보람 받기>

들말마을배곳 마지막 활동으로 명석면의 숲속치즈스쿨에서 치즈, 피자를 만들고 목장체험으로 송아지 우유주기, 소 먹이주기를 해보았습니다. 가족별로 함께 맛난 치즈와 피자도 만들어 먹고, 목장도 둘러보았지요. '피자를 토박이말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란 물음에 알록달록 빈대떡, 둥근납작 구운떡, 다모아 빈대떡, 어울더울 구운떡 등 멋진 이름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토박이말을 익히며 들말마을배곳에서 멋지게 쑥쑥 자란 우리 배움이들에게 잘했다는 칭찬이 듬뿍 담긴 보람장과 토박이말이 새겨진 화장지, 토박이말겨루기로 교육청에서 받은 군것꾸러미를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34명의 배움이들과 어버이들까지 어우렁더우렁 신나고 즐거웠던 2023년의 들말마을배곳 마을배움터 활동을 잘 마무리하는 해끝잔치 자리였습니다. 끝으로 들말마을배곳에서 올 한 해 좋았던 활동과 내년에 하고 싶은 활동, 느낌 등을 나눠보았습니다. 함께여서 참 따뜻하고 즐거웠습니다.



☆ 경남마을교육공동체 소식지와 함께 학교와 마을이 걸어간지 어느덧 4주년이 되었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가 함께 보낸 2023년, 멋지게 장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여러 마을학교의 이야기들과 지역청소식을 한눈에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더 푸짐한 소식 기대합니다. -김해행복마을학교 마을교사-



마을에서 함께 아이들을 키우며 나도 함께 성장하는 느낌이 들었다. 지속가능한 마을교육공동체를 꿈꾸며 내년이 더 기대가 된다. -창녕마을교사-

팀원들과 즐겁게 탐구하고 토론하면서 나의 꿈에 한발짝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멋진 생각과 추억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해 꿈빛동아리 학생 정00-



Remember

모두의 삶을 가꾸고 가능성을 실현하는 교육생태계의 확장과 더 넓은 세상, 마을교육공동체가 미래교육지구로 거듭납니다. 함께 보살피면서 키워가요~ -창원교육지원국장 신종규-

